

대화격률과 함축에 관한 연구

윤성규*

차 례

1. 머리말
2. 협력원칙과 대화함축
3. 격률의 의도적 위반
4. 공손의 격률
5. 맺음말

1. 머리말

언어에 있어서 문장(sentence)과 발화(utterance)는 구분을 해야 한다. 해석이 일정한 문장과는 달리 발화는 주어진 맥락과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화용론(pragmatics)의 한 분야인 발화연구는 함축(implicature)을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함축은 하나의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발화를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전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의미(conveyed meaning)를 뜻한다(Levinson 1983; Mey 1993). 현대와 같이 생활양식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감정표현이 우회적인 양상을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함축적인 의미표현은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Grice(1975)의 대화함축이론을 소개하고 실제 대화의 분석을 통해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그 세부 격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담화격률론의 입장에서 공손을 살펴보고 공손을 대화원칙의 하나의 격률로서 추가한 후 영어와 한국어의 예문을 들어 타당

* 선문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협력원칙과 대화함축

함축의 개념을 발전시킨 Grice가 주장한 함축이론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Grice는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할 때 그 발화는 발화자체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문장의미와 발화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함축(implicatur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의미를 “what is conveyed”라고 한다면, 이에는 직접 말로 표현되어 전달되는 부분인 “what is said”와 간접적으로 함축되어 전달되는 부분인 “what is implicated”로 나눌 수 있다.

대화함축이론은 Grice(1975)의 언어사용이론의 일부이다. Grice에 따르면 언어사용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준수해야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 CP)이라고 한다. 우선 아래의 원문을 보자.

(1) Cooperative Principle:

Make your contribution such a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Grice 1975:45)

이 원칙에서 말하는 것을 ‘contribu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참여한 대화는 일정한 목적이나 방향이 있고 대화참여자들은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rice는 이 협력원칙에 대한 세부 원칙으로서 몇 가지 하부 원칙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을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격률(maxim)이라고 부르고 있다.

(2) Conversational Maxims(Grice 1975:45-46)

1. The maxim of Quant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specifically:
 - (i)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ii)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2. The maxim of Quantity
 (i)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s of the exchange
 (ii)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3. The maxim of Relation
 Make your contributions relevant
4. The maxim of Manner
 Be perspicuous, and specifically:
 - (i) Avoid obscurity
 - (ii) Avoid ambiguity
 - (iii) Be brief
 - (iv) Be orderly

위에서 기술된 질(quality)의 격률은 대화에 공헌하도록 사실인 것만 말하라는 것이고 양(quantity)의 격률은 요구되는 것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관련성(relation)의 격률은 제공되는 정보가 대화와 연관이 되어야 하고 동문서답식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양태(manner)의 격률은 제공되는 정보가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구조의 적형성(well-formedness)이 아니라 언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약에 관한 이런 격률들은 꼭 글자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적용되며 보다 깊은 층위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화자들이 표층에서 특정격률은 위배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정격률은 준수하고 심층에 들어가서는 대화격률이 발화된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을 넘어서서 추론을 이끌어 낸다. 이것을 대화함축이라고 정의하는데 격률들의 상호작용으

로 설명될 수 있는 대화함축에 대한 정의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 (3) S's saying that *p* is conversationally implicates *q* iff:
- (i) S is presumed to be observing the maxims, or at least (in case of floutings) the co-operative principle
 - (ii) in order to maintain this assumption it must be supposed that S thinks that *q*
 - (iii) S thinks that both S and the address H mutually know that H can work out that to preserve the assumption in (i), *q* is in fact required (*p*: propositional content, *q*: implicature, S: Speaker, H: addressee)

(Grice 1975:13)

Grice의 주장은 결국 대화상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은 상황맥락의 세계를 공유해야 하며 대화참여자들이 서로간의 생각이 일치함으로써 대화함축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함축의미를 계산하는 일은, 협력원칙이 준수되었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가정되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Levinson(1983:113)은 대화함축을 언급하며 대화 시에 청자가 알아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 (4) (i) the conventional content of the sentence (P) uttered
- (ii) the co-operative principle and its maxims
 - (iii) the context of P (e.g. its relevance)
 - (iv) certain bits of background information (e.g. P is blatantly false)
 - (v) that (i)-(iv) are mutual knowledge shared by speaker and addressee

청자는 발화문장의 관습적인 내용, 협력원칙과 대화격률, 발화된 명제내용 등 그 명제의 맥락과 배경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자와 화자가 대화함축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유형에 관해 Levinson(1987:113-11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5) (i) S has said that p
- (ii) there's no reason to think S is not observing the maxims, or at least the co-operative principle
- (iii) in order for S to say that p and be indeed observing the maxims or the co-operative principle, S must think that q
- (iv) S must know that it is mutual knowledge that q must be supposed if S is to be taken to be co-operating
- (v) S has done nothing to stop me, the addressee, thinking that q
- (vi) therefore S intends me to think that q , and in saying p has implicated q

위의 논지는 화자가 명제내용을 말할 때 대화격률이나 최소한 협력원칙을 위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명제내용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상에서 화자는 청자가 함축의미를 파악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청자는 대화함축 의미를 올바르게 추론함으로써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화 시에 배경적 지식과 맥락적 정보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Grice는 대화함축의 특징을 취소 가능성(Cancellability), 분리 가능성(Non-detachability), 계산 가능성(Caculability), 비고정성(Unconventionality), 비확정성(Indeterminacy)이라는 5가지로 제시한다(Levinson 1983: 115-18).

위의 격률 중에서 관련성(Relation)의 격률은 다른 격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성범(2002:120)에 나타나 있는 아래의 대화를 보자.

(6) A: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Oscar this year, Russell Crowe, or Will Smith?

B: I think Russell Crowe will win and I found his acceptance speech at the British Academy Film Awards a little too long. Nicole Kidman will win the Oscar for Best Actress.

위의 대화에서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은 “I think Russell Crowe will win”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말들은 불필요하다. 이 경우, 나머지 말들은 질문과 관계가 없으므로 관건성의 격률에 어긋날 뿐더러,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했기에 양의 격률(Quantity 2 maxim)을 어긴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청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대로 말하지도 않은 채로 화자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다면 양의 격률을 어기는 동시에 양태의 격률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이성범(2002:120-21)에 의하면 대화분석시 하나의 발화에 대해 여러 가지 격률이 구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Occam의 절약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를 고려해 볼 때 격률이론의 가치를 다소 반감시킨다고 할 수 있다. Occam은 어떤 이론이건 최소한도의 필요한 규칙이나 원리들로 이루어진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 주목하여 Sperber and Wilson(1986)은 Grice가 제시한 격률들은 적절성(Relevance)이라는 원리 아래 통합될 수 있고, 이 원리만으로도 모든 대화함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격률들이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상호 보완되기도 하며 대화함축을 이끌어 내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Grice의 4가지 격률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Horn(1989)은 Grice의 격률 중에서 질의 격률을 제외한 다른 격률들을 청자지향적인 Q-원리(Q-Principle)와 화자지향적인 R-원리(R-Principle)의 두 가지 큰 원리로 재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추론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Q-Principle	R-Principle
Make your contribution sufficient	Make your contribution necessary
Say as much as you can (given both Quality and R-Principle)	Say no more than you must (given both Quality and Q-Principle)
Collects Grice's Quantity 1 maxim and Manner 1 and Manner 2 maxim	Collects Grice's Relation maxim, Quantity 2, and Manner 3 maxim

(이성범 2002:232)

Q-원리는 대화할 때 청자를 고려해서 화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의사소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자는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중의적이지 않게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R-원리는 화자를 고려한 원리로서 의사소통은 효과에 못지않게 경제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말만, 그리고 대화에 관계되는 말만, 간결하게 말하라는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함축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을 한 Horn은 Q-원리는 “Principle of Maximizing Contextual Effects”를 추구하는 것이고 R-원리는 “Principle of Minimizing Processing Effort”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Zipf(1949)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의 원리(Principle of Economy)가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작용하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경제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자의 경제성은 “the force of diversification”을 뜻하며 청자의 경제성은 “the force of unification”을 뜻한다.

Horn의 추론 모형은 화자와 청자의 목표지향성과 언어표현의 경제성을 접목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성범(2002:140)이 예리하게 지적하였듯이, Grice의 이론은 격

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는데 미흡한 반면, Horn의 이론은 보다 포괄적인 Q-원리와 R-원리의 이분법 접근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뒤의 4장에서 제시할 공손의 격률은 청자지향적인 Q-원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3. 격률의 의도적 위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사용의 지침으로 제시된 격률들은 항상 준수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변상황 때문에 대화가 중단되거나 대화 상대방의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해 격률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함축이 생기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대화에서 어떤 격률이 의도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함축이 거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함축은 대화 상대방의 발언이 대화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론이 생긴다.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을 하라는 양(Quantity)의 격률은 종종 다른 격률들과 충돌(crash)한다. 격률의 의도적 위반(Flouting maxims)이 나타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7) A: Where is my box of candies?

B: I saw your younger brother was in your room this morning.

(+> Maybe your younger brother ate your candies.)

(+>=함축표시)

A가 캔디 박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B처럼 대답했다면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기에 양의 격률은 위배하고 있다. 그런데 A의 질문에 동생을 보았

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기에 최소한 질의 격률은 지키고 있다. B는 동생이 먹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참여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B의 대화는 대화함축을 유발시켜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더 살펴보자.

(8) A: Where does C live?

B: Somewhere in the South of England.

(+> B does not know in which town of England C lives.)

A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C를 만나고 싶어 C의 친구인 B에게 영국 내 주소를 물어본다. 양의 격률을 지킨다면 B는 C의 주소를 말해야 하지만 질의 격률을 지키면서 양의 격률(Quantity 1 maxim)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화함축을 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거짓이거나 증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기에 협력원칙을 어기어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함축적 의미가 발생하여 의사전달의 효율성을 거둘 수도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9) A: Honey, what do you think about me?

B: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10) A: 어제 영어듣기 평가 시험 어땠어?

B: 말도 하지마. 죽다가 살아났어... 원어민도 못 풀거야.

(11) A: Mom, I lost your necklace.

B: Great, you did a good job.

위의 대화에서 (9)번의 대화에서 B는 비유법을 사용하여 A에 대한 강한 애

정을 표시하고 있다. (10)번의 대화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영어듣기 평가가 매우 어려웠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1)번의 대화에서 B는 반어법(irony)을 사용하여 A에 대한 강한 질책을 효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Grice의 격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격률로 간주되는 질의 격률의 의도적인 위반도 화자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어 대화함축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 A: wife B: husband

A: Honey, new department store opened in the 5th street, and now there is a big opening sale.

B: Too many department stores... too many...

We will meet economic crisis soon or later.

A: Well...Don't you remember this Sunday is our wedding anniversary?

(+> I want to buy something at the new department store.)

B: So what?

(+> I don't want buy anything at the new department store.)

A: What do you mean "so what"? All my clothes are old-fashioned.

(+> Don't pretend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now. I need new clothes.)

B: There is a rumor that our company will fire few employees next month.

(+> Don't spend any money. It's possible I will be fired.)

위의 대화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참여자는 직접적으로 마음 속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 말하며 관련성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모두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걸어서 드러내어 화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보면 양의 격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부사이의 대화에서 이런 격률들을

모두 준수했다면 부인은 이번 일요일 결혼기념일인데 마침 새로 오픈한 백화점에서 오프닝 세일을 하니 옷을 사달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반면 남편은 직설적인 아내의 요구에 동의여부를 확실히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소통은 완전히 고정된 규칙에만 의존하여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화함축 조차도 다른 대화함축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아래의 유사한 예문을 살펴보자.

(13) A: 아들 B: 어머니

A: 이번에 SK텔레콤에서 휴대폰 보상판매를 실시한다던데...

사실 내 핸드폰이 구식이라서 말인데요... 엄마.... 저기요...

(+> 구식인 휴대폰 좀 바꾸어 주세요.)

B: 다음 주에 영어시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 안돼. 시험공부나 해.)

A: 영수는 자기 엄마가 이번에 휴대폰 최신형으로 사주셨다고 자랑하던데요...

(+> 영수어머니처럼 기분 좋게 휴대폰 좀 바꾸어 주세요.)

B: 영수어머니가 영수가 전국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은상 탔다고 자랑하시더라.

(+> 영수는 은상 탄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던데 넌 잘하는 것도 없잖아. 안돼.)

A: 나도 영수처럼 미국 어학연수 보내줘 봐요. 난 금상 탈 자신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내가 더 친구들한테 인기 많아요.

(+> 내 성격이 영수보다 낮고 영수가 상을 탄 것은 어학연수 덕분이니까 자꾸 공부 얘기만 하지 마세요.)

위의 대화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대화참여자는 관련성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모두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길어로 드러내어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면에서 보면 양의 격률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엄마와 아들이 대화에서 이런 격률들을 준수했다면 아들은 구식 휴대폰을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영수처럼 새로 사달라고 명확하게 말할 것이고, 어머니는 절대 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상을 받아와서 신형 휴대폰을 얻게 된 영수를 부러워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충고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할 경우에는 대화함축이 발생하지 않고 협력원칙 및 세부 원칙까지도 준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의 우리가 일상대화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위의 대화는 사람 사이의 감정 표출에 있어서 꼭 문자 그대로의 힘에 의하지 않고도 대화격률의 의도적 위반으로 인한 함축 의미를 통해 표현했다는 점에서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고 협력원칙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문자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협력원칙과 대화격률을 통해 화자의 의도된 함축의미를 파악한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간혹 청자는 그런 화자의 함축의미를 잘못 추측하여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음 이성범(2002:108)에 나타난 Tannen(1979)의 예문이 이런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14) conversation breakdown and marital breakups First exchange:

wife: Bob's having a party. You wanna go?

husband: OK.

Second exchange (later):

wife: Are you sure you wanna go?

husband: OK. Let's not go. I'm tired anyway.

Post-mortem:

wife: We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you didn't want to.

husband: I wanted to. You didn't want to.

위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함축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추론에 실패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4. 공손의 격률

공손(politeness)은 상대방의 공적인 자아 이미지에 대한 고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Fraser(1990)는 공손에 대한 연구가 사회규범론(social-norm view), 담화격률론(conversational-maxim view), 체면구제론(face-saving view), 담화계약론(conversational-contract view)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담화격률론의 입장에서 공손을 살펴보고자 한다.

Lakoff(1973:269)는 협력원칙과 공손을 결합하여 화용적인 적형성과 같은 화용규칙(Pragmatic competence)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5) Rules of Pragmatic Competence

- (a) Be clear (Clarity Rule)
- (b) Be polite (Politeness Rule)

(15a)는 Grice의 협력원칙에서 유래되었으며 (15b)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주요원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 두 규칙이 서로 대립되며, 때로는 상호보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5b)의 하위 격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6) Rules of Politeness

- (a) Don't impose
- (b) Give options
- (c) Make A feel good - be friendly

Lakoff(1973:301-303)는 위의 세 가지가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데 공손한 행위는 세 가지 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한편 Leech(1983)는 공손에 대한 담화격률을 확대하고 대인간의 수사학에는 Grice의 협력원칙(CP), 공손원칙(PP) 그리고 반어원칙(IP)이 포함된다고 역설한다.

Yun(1993)에서 저자는 “부담주지 마라,” “선택권을 주라”는 Lakoff의 공손의 하위 격률들을 하나로 묶고 “겸손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새로운 공손의 하부 격률을 설정하여 협력원칙 아래 질, 양, 관련성, 양태, 공손의 다섯 가지 격률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에 (a)와 (b)를 통합한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된 아래의 공손의 격률을 살펴보자.

(17) Politeness maxim (Yun 1993:164)

- (i) Don't impose
- (ii) Make A feel good - be friendly
- (iii) Respect others by modesty

공손의 격률과 기타 대화격률의 충돌을 보여주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8) A: 교사 B:학생

A: 인수 ~~씨~~, 또 늦으~~셨~~어.

B: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만 늦잠을 자다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지를 돌려준다.)

A: 우리 인수 ~~씨께서~~ 참 잘도 하~~시~~었어~~요~~.

위의 대화에서 A는 처음 발화에서는 공손의 격률을 위반했고 두 번째 발화에서는 질의 격률과 공손의 격률을 위반했다. 교사가 학생한테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존칭 접미사 “시”와 청자를 대우하는 종결형어미 “요”를 쓴 것은 학생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 경우 학생은 더욱 창피해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A는 마지막에 반어법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학생에게 “공부 좀 하라”는 대화함축을 보여준다. 이 경우 “청자의 기분을 맞추어라”라는 공손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다른 격률을 위반하면서 공손의 격률을 준수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19) a. A: What do you think about my new hair style?

B: Well... your old hair style was also good.

b. A: 내 헤어스타일 괜찮아?

B: 글썸... 예전 헤어스타일도 좋았어.

영어와 한국어 예문에서 둘 다 A의 질문에 대해 B가 직설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돌려 말했기 때문에 양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는 A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야 한다는 공손의 격률을 지키며 대화를 이끌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더 살펴보자.

(20) a. We are deeply regretted that we cannot give you a chance this time because there are so many strong candidates for this job.

b. I know you're busy, but might I ask you if ~~em~~ if you happen to have an extra pencil that I could, *um*..., *maybe* borrow?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실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는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20a)에서 “We are deeply regretted that”의 부분을 빼고 “We cannot give you a chance”만 쓰면 다소 통명스럽고 예의 없이 느껴지며 공손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b)에서 화자는 이탤릭체로 표시된 울타리들(hedges) 또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손을 표시한다. 화자와 청자의 인간적 관계에 따른 대화형식이 매우 중시된다는 점에서 공손의 격률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사한 예문을 한국어 대화에서 살펴보자.

(21) a. 이번 달 월급 좀 미리 주세요.

b. 이번 달 월급 좀 미리 주실 수 있으세요?

c. *저기*...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달에 동생 학비를 대 주느라 돈이 **좀** 없어서...

저기 월급 **좀** 어떻게...

위의 담화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1a)와 같이 간단하게 말해도 되는 것을 (21b)와 (21c)에서 양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21b)의 경우 화자는 명령문 형식대신 의문문 형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 즉 강한 거부감을 주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청자에게 제공하며 공손함을 전달한다. 그리고 (21c)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말을 길게 늘어 말하는 화자의 동기는 “월급을 미리 가불해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거나 미안하다”는 공손함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에도 역시 울타리들(hedges)이 사용된다. (21b)와 (21c)에서 화자는 양의 격률과 양태의 격률을 위반하는 대신 공손의 격률을 우선순위에 놓고 준수하며 함축의미를 전달했고, 청자는 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영어의 예도 이런 점을 확인시킨다.

- (22) a. Please lend me some cash.
 b. Could you lend me some cash?
 c. *Well...* I don't suppose that you would *by any chance* be able to lend me some cash, would you?

(22a)처럼 직접언어행위(direct speech act)를 통한 간결한 표현을 하는 대신 (22b)와 (22c)에서 양태의 격률(Manner 3 maxim)를 위반하며 간접언어행위(indirect speech act)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죄송하다는 마음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돈을 빌려줄 것을 화자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거절의 선택권을 주었다는 점을 볼 때 양의 격률이나 양태의 격률보다 공손의 격률을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경어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공손의 격률이 매우 중요시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 (23) A: 이번에 **아드님**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흐뭇하시겠어요.
 B: 필요...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이죠...

- A: 저도 **자식놈**을 키우는데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키셔서 그렇게 출세를 시키셨나요? 좀 알려 주세요.
- B: 사실 저는 **애비**라고 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교육이랄 것도 뭐... 아이 엄마가 아이 건강에 신경써준 게 다예요.
- A: 아유...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니에요?

A는 B의 아들에게 존경어에 속하는 “아드님”과 “시” 등을 쓰며 상대방에게 공손을 표현하고 있다. B는 속으로는 아들이 매우 기특해 자랑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겸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화참여자는 “자식놈,” “애비” 등 자신과 아들을 낮추며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손의 격률 중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공손의 세부 격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한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겸양표현으로 질의 격률과 양의 격률은 위반했으나 공손의 격률은 지키고 있다.

- (24) a.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이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b.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c. 솜씨가 없어 맛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특히 (24b, c)의 경우에 공손의 책략 중에 “강요하지 말라”는 세부 격률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세부 격률이 충돌하고 있고,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 겸양’의 태도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하듯 화자는 겸양표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 맺음말

함축은 전형적으로 언어현상에 대해 화용론에 입각한 설명을 한다. 발화의 의도를 해석하는 원리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언어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

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대화참여자들이 발화의 해석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묵시적인 관습을 존중하는데 이 관습을 Grice는 대화의 협력원칙이라고 지칭한다.

윗 장의 여러 예문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화자는 대화함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청자는 추론을 통해 이런 전달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특정의 선택된 추론은 협력원칙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 것이며, 세부 격률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호보안하며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화참여자들이 표층에서 특정 격률은 위배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정 격률은 준수하고, 심층에 들어가서는 대화격률이 발화된 문장의 의미론적 내용을 넘어서서 추론을 이끌어 낸다. 또한 특정 격률이 다른 격률과 충돌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격률들의 우선순위가 문화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측면에 주목하여 공손의 격률을 협력원칙의 세부 격률 속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격률과 대화함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예문의 대화분석을 시도하였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서로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사용의 협력원칙과 공손을 포함한 대화격률의 연구는 문화 간 의사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0.
- 이성범. 『영어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 Brown, P. and S.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 in Language Use*. Cambridge: CUP, 1987.
- Cho, Choon-Hak. "A Study of Korean Pragmatics: Dexis and Politeness."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dissertation. 1982.
- Fraser, B. "Perspectives on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14 (1990): 219-36.
- Fraser, B.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Oxford: Blackwell, 1995.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P. Cole and J. Morgan.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41-58.
- Horn, L. "Toward of New Te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xt*. Ed. D. Schriffrin (GURT '84). Washington: Georgetown UP, 1984. 11-42.
- Horn, L.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89.
- Kasher, A. "Politeness and Rationality." *Pragmatics and Semantics* 3 (1986): 102-114.
- Lakoff, R.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1973): 292-305.
- Lee, Sungbom. "Metapragmatics of Speech and Its Interactions with Pragmatic Inferences." *Discourse and Cognition* 14.2 (2007): 117-36.
- Leech, G. N.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1983.
- Levinson, S. *Pragmatics*. Cambridge: CUP, 1983.
- Mey, J. L.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3.

Sperber, D. and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Yun, Sung Kyu. "Honorific Agreement."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dissertation, 1993.

Abstract

A Study of Conversational Maxims and Implicature

Sung Kyu Yun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Grice's conversational maxims and to characterize the implicature. Grice proposes the Cooperative Principle (CP) and four maxims (Quality, Quantity, Relation, Manner). The assumption that speaker and hearer are both observing the CP and its component maxims permits the exploitation of these maxims to generate conversational implicature, a conveyed message which is meant without being said. Implicature results from an effort to resolve the bottleneck by controlling the informativeness of an utterance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by leaving some part of the speaker's message unuttered.

As pointed out by Yun (1993), the Politeness Principle (PP) does not exist apart from the CP, but rather exists as one of the maxims of the CP in pragmatics. The Politeness maxim is more or less universal, but the degree of its application varies according to the cul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teness 3 maxim (Modesty)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kind of maxim in Korea.

This study demonstrates the application of the CP and the pragmatic inference derived therefrom in discussing English and Korean examples. It reveals that sometimes the maxims of the CP work together, reinforcing each other. It also shows that clashes between the maxims occur very often, while one maxim takes priority over the other. It is not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xims can make communication successful via implicature. By exploring implied meanings and indirect speech acts in

utterance,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socio-cultural factors in human verbal communication.

Key Words: Cooperative Principle, conversational maxim, conversational implicature, politeness, flouting maxims.